

# 양적 풍요 속에 판도변화 조짐

## 창·복간 활기로 계간지시대 맞은 문학지

이운택

문학평론가

전시대 권위주의적 통제와 검열의 시각이 무너지면서, 근래 80년대 후반기 문학관은 자율적 표현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 분명한 징후로 드러나는 것이 각종 문예지의 복간 및 창간 러시일 것이다. 이미 70년대의 「창작과 비평」이 다시 계간지로 복귀하였고, 「문학과 지성」 또한 세대교체와 함께 「문학과 사회」로 재탄생했다. 계간 문예지의 새로운 등장 또한 획기적 사항이다. 「문학과 비평」, 「시대문학」, 「불교문학」 등이 잇달아 선을 보였다. 이러한 계간지의 양적 증가는 기존 「세계의 문학」, 「문예중앙」, 「외국문학」 등과 함께 집중적인 발표지면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월간문예지 또한 「현대문학」, 「문학사상」, 「한국문학」, 「월간문학」, 「동서문학」, 「문학정신」, 「동양문학」, 「노동문학」 등 풍성한 지면이 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 경영난과 원고난의 이중고

이러한 월·계간지의 양적 팽창이 문인과 독자들에게 기여하는 역할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발표 기회가 넓혀진 그만큼 우리의 문학관은 다양함과 새로움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작가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고, 신인의 등장 또한 만만찮은 기세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 증가가 곧 문학적 역량의 성숙, 그리고 독자의 증폭이란 등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단순한 물적 증가추세에 의한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풍토만 성행할 것인가, 제각기의 분명한 존립근거를 확보하면서 다양한 문학 흐름으로 수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의 시각은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다. 나의 회의적인 시각은 무엇보다도 지면을 채울 인적 기반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다. 80년대 후반기의 문학이 80년대 벽두에서 전반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풍요로움이 알게 모르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민중문학권의 작품생산 실적과 새로운 세대의 실험정신 또한 상당히 위축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중견급 이상의 문학가들이 왕성한 창작욕구를 지탱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새로운 느낌으로 떠오르는 젊은 문학권 또한 아직 분명한 자기인식을 전개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문학은 지금 모종의 암중모색

기에 접어들고 있거나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발표지면만 갑작스레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문학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문제작자에게 과중한 원고청탁이 쇄도하게 되고, 문제작가는 문제작을 생산하는데 와신상담하며 변비증세를 보이고, 날림 작품이 성행하는 역기능을 파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소설계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난 일간지의 연재소설 청탁러시까지 겹쳐 우리의 중견급 작가들은 지금 즐거운 비명 상태다. 이 즐거운 비명 이면에는 자신의 작가정신을 유행병적 시류에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긴장과 버팀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기반의 불투명성이 증폭된 지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근본이유는 될 수 없다. 문학매체는 본래적으로 새로운 작품과 방향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지도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문학매체의 능동적 적극성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문학매체는 증폭된 양적기반 만큼 적극적 편집체제를 띠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야말로 치명적이다. 월간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회의는 사실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대문학」은 국내 최장수 순수문예지라는 연륜과 광범위한 독자층의 지명도를 배경으로 탄탄한 체계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수전통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학성향을 유연한 입장으로 수용하는 여유를 보인다. 「문학사상」 또한 다채로운 편집성향과 테크닉션, 그리고 부대 출판사업의 상업적 성공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지면으로 자리잡고 있다.

### 군소당파적 문예지는 부정적

그러나 짧은 연륜과 아직 독자층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월간 문예지들은 상당한 경영난과 원고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새로운 문예지들에게 시급한 과제는 분명한 독자적 존립근거로서의 편집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연륜과 독자층의 불투명성을 오히려 새로움의 근거로 삼고 과감한 편집체제의 개편, 나름의 편제특성을 제시하면서 기존 월간지와 다른 다양성으로 대등한 역할분담을 펼쳐나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발행부수나 원고 게재 수준상 약진고투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전문편집인의 확보, 일관성있는 기획력의 뒷받침이 필수적 이리라. 혹자는 월간문예지가 나름의 독자적 성격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월간지 또한 분명한 독자층에 대한 지향점과 거시적 의미에서의 성향은 확보하는 게 생존의 길임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창간된 월간 「노동문학」 같은 것은 기획력과 편집방향의 구체적 대상 확보 여부에 따라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중적으로 노동계층 대중성을 파고든다면 특색있는 월간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름의 집중 독자층을 겨냥한, 그리고 다른 월간지와 무언가 다른 편집성향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문예지의 독자적 성격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 계간지일 것이다. 계간지야말로 전문성 구축이 존립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70년대를 풍미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나름의 방향성과 세계관을 갖춘 편집진이 진용을 갖추고, 구체적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면을 꾸밀 수 있다면, 계간문예지는 우리 문학의 귀중한 매체로 존립한다. 단순한 발표지면으로서의 계간지는 월간지의 물량공세와 타 계간지의 전문성에 밀려 소멸의 운명을 맞기 십상이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세계의 문학」 등 일관성있는 비평그룹의 지도적 편집체제로 자리를 잡던가, 「외국문학」, 「불교문학」 등 특색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제3의 시각, 장리적 특성(시전문, 소설전문, 비평전문 등), 새로운 전위성 등 나름의 존립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가 독

자적 성격과 다양성으로 변별성을 지닐 수 있다면, 문예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결국 우리문학의 지평을 제치고 새로이 확보하는 물적기반이 되며, 문학가에게는 풍요로운 상상력의 시험무대이며, 독자층은 다양한 성격과 전문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존립의 당위성 없이 단순한 발표지면의 확보, 발표 매체를 중심으로 한 문학 헤게모니적 유지, 그리고 군소당파적 백화점 편집성향이 속출한다면 지면낭비일 수밖에 없다. 월·계간 문예지는 엄청난 공적 매체이며, 객관적 공신력을 생명으로 한다. 용고리 대신 닭머리식의 창간 러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점이며, 기왕의 월·계간지들은 탐색과 과도적 혼미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편집성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지에 급급하는 소극성을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 졸업과 입학에 '知的선물'을...

- ◆ 책과 독자를 만나게 하는 知的 징검다리 「출판저널」을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 신청 방법은 본 잡지 맨 뒷면 정기구독 안내란을 참조하시고 선물하실 분의 주소·성함을 명기하여 구독료를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받는 분에게 대호 알려드립니다.

매월 5·20일 발행(격주간)  
1년 구독료 12,000원 (구독문의 : 732-1431~3)